

최연의 산 이야기 <27> 가야산(경남) 1



성주에서 바라본 가야산. 골산이면서 모양이 수려하다.

# 가야산은 고운 선생이 노닐던 놀이터였구나

<孤雲>

가야산(伽倻山)은 백두대간이 덕유산(德裕山)에 이르러 전, 대덕산(大德山)에서 동쪽으로 갈라져간 산줄기가 수도산(修道山)을 일군 다음 남은 기운을 다 펼쳐 빚어놓은 산으로 산세가 웅장하면서도 수려하고 또 살기(殺氣)를 띠지 않아 지덕(地德)이 두둑하다.

가야산은 신라시대부터 '삼재(전쟁, 가뭄, 홍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라는 삼재불입지(三災不入之地)의 영산(靈山)으로 일컬어졌다. 임진왜란 때도 소백산(小白山), 오대산(五臺山)과 더불어 왜적의 침략이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가야산 동북쪽에는 <정감록(鄭鑑錄)>에서 말하는 십승지(十勝地) 중의 하나인 만수동(萬壽洞)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둘레가 200리나 되며 오래도록 물을 보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伽倻山下 有萬壽洞 周回二百里 可得保有] 정감록에서 말하는 만수동은 합천군 가야면 가천리 송산(崇山)을 가리킨다. 이 송산의 정북쪽에 가야산의 연봉이 솟아 있다.

가야산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이 옛날 대가야국이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인도의 불교성지인 부다가야 근처의 가야산범어로는 '소'를 뜻함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가야산은 일명 우두산(牛頭山)이라고도 하는데 산 정상에 소머리처럼 생긴 우두암(牛頭岩)이라는 바위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주봉은 해발 1430m의 상왕봉(象王峰)이며 그 둘레를 두리봉, 원기봉, 단지봉, 남산 제1봉, 매화산, 마령, 이상봉 등 1천m가 넘는 봉우리들이 에워싸고 있다.

특히 주봉인 상왕봉에는 날씨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우비정(牛鼻井)이라는 샘이 있다.

가야산은 산세가 두툽고 골이 깊어 사시사철 많은 물을 토해 낸다. 물이 넘쳐나서 가야산 아래 가야천(伽倻川) 주변의 들녘은 옛날부터 가뭄을 타지 않아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땅도 아주 기름져서 "중자 한 말을 뿌리면 소출이 백이삼십 두(斗)나 되었다"고 <택리지>에 적어 놓고 있다. 또 밭에는 목화 농사가 잘 되어 조선시대에는 이 지방을 일러 '의식(衣食)의 고장'이라고 일컬었다고 한다.

이처럼 가야산이 지닌 지덕(地德)으로 이곳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전쟁과 흉년을 겪지 않는 복을 누렸는데, 옛 선지자 중에는 가야산의 정기(精氣)가 가야산에 깃들인 사람들만 보듬는 것이 아니라 만백성을 거둔 큰 힘을 폼했다고 말한 이들도 있다. 예언서 <감결(鑑訣)>에 우리나라 도읍 터가 될 만한 땅을 열거하면서 "계룡산이 8백년 도읍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도읍이 가야산으로 옮겨가 가야산 기슭이 1천년 동안 수도(首都)가 되리라"고 전했다. 청화산인(靑華山人)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擇里志)>에서 가야산을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묘향산, 칠보산, 청량산과 더불어 12명산으로 꼽았다. 이 명산들 중에서도 가야산만큼 입구에서부터 살기를 벗고 수려한 산세를 보여 주는 산은 거의 없다.

불교신앙의 보고인 오대산과 비교해 보아도 맑고 깨끗한 기운은 가야산이 더 낫다. 그래서 일가, 오대산은 인진왜란의 전화(戰禍)는 면했으나 한국전쟁 때는 치열한 전투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상대적으로 가야산은 한국전쟁의 참담한 비극이 비껴갔다.

가야산 초입에는 홍류동(紅流洞)이라 불리는 계곡이 있는데, 이곳은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선생의 유적이 있는 곳이다. 고운 선생은 신라가 망하기 17년 전인 918년 제54대 경명왕(景明王) 2년에 고려 태조 왕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가 반드시 천명(天命)을 받을 것을 예견하여 경명왕에게 '제림황엽(鷲林黃葉) 곡령청송(鶴嶺靑松)'이라는 내용의 상서(上書)를 올렸다. 신라 서울 계림에는 단풍이 들고 고려 서울 송경 곧 곡령에는 푸른 소나무가 무성하다. 다시 말해서 신라의 국운은 사양길에 있고 고려의 국운이 왕성하니 각별히 경각해야 한다는 사연의 상서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치원은 왕의 미움만 사고 말았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최치원은 가족을 데리고 가야산에 들어가 숨어 살다가 끝내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후세에 그의 높은 학문을 추앙하여 그를 유선(儒仙)이라 불렀고 그의 예언대로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전하의 주인이

되자 그가 살던 경주 금오산(金烏山) 북쪽의 저택을 상서장(上書莊)이라 불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고운 선생이 형 현준(賢俊) 스님, 정현(定玄) 스님과 더불어 가야산에 은둔하며 도를 닦다 종적을 감췄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가야산에는 최치원과 관련된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바둑을 두었던 능산정(龍山亭)과 능산에 대한 시귀(詩句)를 새긴 제시석(題詩石), 독서를 했다는 사운당(四雲堂), 가야금을 타며 신라의 망국한(亡國恨)을 달랬다는 학사대(學士臺) 그리고 그가 심었다는 수령 1천년이 넘는 전나무 등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가야산 홍류동 무릉고 옆에는 고운 선생이 썼다는 시문(詩文)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이 바위를 제시석(題詩石)이라고 한다.

바위에 부딪히며 미친 듯 쏟아지는 물소리, 첩첩한 산 봉우리를 호령하네  
사람 말소리는 바로 옆에서도 알아듣기 어렵네  
사람들 다루는 소리 귀에 닿을까 늘 두려워  
저 흐르는 물소리로 산을 덮어버렸네

狂奔巖石吼重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고운 선생은 유불선(儒佛仙) 삼교(三教) 모두에 조예가 깊었다. 특히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관련 저술을 많이 남겼는데 그중에서도 유명한 고승들의 비문과 전기들 기록한 그의 사산 비명(四山碑銘)은 금석문(金石文)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남아 있다. <해동전도록(海東傳道錄)>에는 최치원이 최승우(崔承祐)에게 선도(仙道)를 전수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후세의 선도인(仙道人)들은 그가 선인(仙人)이 되어 아직도 살아 있으며, 지금도 가야산과 지리산을 왕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 집

예초기 들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기계음에 밀려 집을 깨는 날은 짜증부터 난다. 또 어떤 농민이? 뒷집 해동이? 아니면 풀이 자란 풀을 보지 못하는 서남이네 이 씨? 나가서 확인해볼 사항도 아니고 풀을 깎으면 쫘나보다 넘어갈 일이어서 나는 이불을 당겨 덮으며 잠을 이어나갔다.

"여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울타리가 없어 아무나 마음대로 마당을 들락거릴 수 있다.) 여자 목소리인 것만은 분명한데 누굴까? 밑에 집 아주머니가? 그 목소리 아닌데. "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 애애애애 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

근데 이번엔 예초기 소리가 가깝다. 마당 어디처럼 가깝다. 소리의 크기도 잠을 이어나가기엔 딱하다. 상체를 일으켜 창밖을 보았다. 낮을 뜬 아주머니가 풀밭을 돌아 집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모르는 사람이다. 순간, 뇌리를 스치는 무엇이 있었다. 가만 오늘이 며칠인가? 별초 허러 왔구나!

"아니 뭘 사람들이 아침에 별초를 하고 난리야."  
"일찍 하고 빨리 가려고 그러나보지."  
"아니 그렇게 빨리 가서 뭐하러구?"  
"길이 막히니까 그러겠지. 올랜 할머니가 보이질 않네."  
"그래? 아프신가? 하긴 이제 그분도 때가 됐겠지."

아내와 말을 주고받으며 헤아려보니 5.6년은 넘게 흘렀다. 별초하던 일행 중의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있는 내게 다가오더니 물었다.  
"어디서 오셨수?"  
"글쎄요. 내가 어디서 왔더라?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이구 참 그 양반... 여기가 내 집인데."

'내 집' 이라니? 틀리다고는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왠지 모를 벽이 느껴졌다.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니 할머니 허리를 펴고 서서 집과 마주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때까지 이 집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지나간 삶에 대한 회한에 젖어 있던 것이었을까? 할머니처럼 이 집에서 살았다는 사람을 두어 사람 더 만날 수 있었다. 거기에, 이 마을에 살면서 이 집을 거쳐간 가구가 세 집이니 이 집도 내력이 많은 곳이다.

많은 측면에서 본다면 주위에 무덤들도 많다. 등성이에서 살짝 비껴 지은 집인 까닭에, 등성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죽 늘어선 무덤 다섯이 집 옆을 막고 있다. 집으로 들어갈 때도 차에서 내려 무덤 옆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 죽은 사람의 집 옆을 지나야 산 사람의 집으로 가게 돼 있다. 따지고 들면 이 세상 무덤 아닌 곳이 어디 있더라. 산 자체가 커다란 무덤이 아니던가?

나는 등그런 산에 산다  
나무와 밭으로 뒤덮인 산,  
숲에서 나온 물줄기는 밭을 가로질러 산 아래 들판으로 흐른다  
기름은 구름이 내 오두막을 감싸기도 한다

내 산엔 산 같은 무덤들이 있다  
아버지 어머니도 산에 묻혔다  
아버진 말이 없는 분이셨다  
얼굴을 본 기억이 없는 어머니 노래를 잘 부르셨다고 한다

이제 출산 날이 다가온 아내의 배를 보니  
무덤을 참 많이도 닮았다

내 첫 시집에 실린 '산'이라는 시다. 무덤에는 죽음과 함께 탄생의 모습이 어려 있다. 죽음이 곧 사라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무덤의 풀을 깎는 사람들의 손길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무덤의 풀을 깎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 땅과 저 바람 · 구름 · 별빛으로 이어지는 집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야 어찌 사라질 수 있을까?

■ 유승도 (시인)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 사찰화재보험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 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할 수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포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p>★유의사항</p> <p>보험회사의 현정위험 심사(실측) 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p>	<p>★가입시 필요자료</p> <p>- 사찰등록증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p>
--	---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호 전화: **010-7344-1881**

##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 현 대 칼 라 지 붓 공 사